



보도자료

사무총장 우인식 변호사(010-5174-7736)
대 변 인 양윤숙 변호사(010-7445-0729)
대 변 인 이동찬 변호사(010-8759-0252)
사무처 02-599-4434 | www.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북송 위기 8명 탈북민 가족과 한변 등 인권단체, 문 대통령에게 긴급 면담 요청

일시 : 2019. 6. 4(화). 오전 10시(오후 3시를 오전 10시로 수정합니다)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지난 4월 27일 7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다시 5월 21일 및 25일 중국에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 8명의 탈북민들 중에는 13세의 여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이들이 북송될 경우 한국행으로 판명되어 처형당하거나 운이 좋아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상황이기에 그 부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현재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이들 탈북민 8명은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마땅히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또한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켜야한다. 만약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

이에 한변 등 인권단체는 위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오늘 3일자로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및 추귀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조속히 이들 8명을 구출할 절차와 대책을 마련하여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구조 요청서를 발송하고, 내일(4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많은 애국시민의 동참을 기대한다.

2019. 6. 3.

**강제북송 위기 8명 탈북민 가족,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